

김대중도서관 개관식 축사

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외분,

김우식 연세대 총장님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? 참으로 기쁘고 뜻깊은 자리입니다.

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. 오늘 개관하는 이 도서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. 도서관의 개관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관련 전문 학술기관을 개설하게 된 연세대학교에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우리 국민들은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봉사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고대해 왔습니다. 역사 속에서 자량과 긍지로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행복합니다.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자리입니다. 각 정당의 대표와 각계 지도자 분들이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 오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아울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객관

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,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축적해 가는 전통을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
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,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. 대통령 재임 중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정보화 기반을 닦아 놓으셨습니다.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해서 남북간 화해협력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.

앞서 소개된 해외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잘 나타나 있듯이, 제가 몇 차례의 해외 순방에서 접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세계 각국의 평가는 우리의 일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.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명망과 위상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역사는 김 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와 평화, 통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

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, 그리고 이회호 여사님,

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며, 이 도서관이 평화와 통일 연구의 권위 있는 명소로서, 그리고 새로운 진직 대통령 문화를 꽃피우는 터전으로 크게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